STX조선, 선박에 에폭시도료 적용

Nippon Paint와 공동개발 ... 친환경적 · 원가절감에 안전성도 우수

STX조선이 국내 조선시장에서는 처음으로 선박에 친환경 도료를 적용하게 됐다.

STX조선은 최근 홍콩 파라코우로부터 5만1000DWT급 석유제품운반선(PC선) 4척의 기관실과 선실 내부에 대해 친환경 도료 적용 승인을 받았다고 8월23일 발표했다.

STX조선은 2005년 5월부터 일본 최대 도료기업 Nippon Paint와 공동으로 도료개발과 실험을 거쳐 한국의 도장작업 조건과 환경에 최적화된 친환경 도료인 수용성 에폭시(Epoxy) 도료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에폭시 도료는 기존 선박 기관실, 선실 내부에 적용하던 알키드(Alkyd) 도료에 비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쾌적한 작업장 조성에 도움을 주는데다 폭발과 화재위험도 낮은 점이 큰 장점이다.

특히, 기존 2회에 걸쳐 수행하던 기관실, 선실 도장 작업을 1회로 줄여 도장 공정기간 단축과 함께 원가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STX조선은 “친환경 도료 적용이 미래 조선산업의 필연적인 과제로 연구 개발을 계속해 결실을 맺었다”며 “향후 건조하는 선박 전체에 친환경 도료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진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8/23>